

東友會報

九泳立  
載天東  
崔尹金  
行人人  
發編輯  
印刷人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267)3563

교환(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  
의 友誼增進과 母校發  
展에 기여키 위한 事  
業을 전개한다

## 第三章 亂世之亂

(一) 三

甲主

여동

車 緯

三  
合

保  
險  
하  
세

한국  
한국

(26) 3111~5

東二

國學院直  
獎

忠  
營

# 水 溪

# 冰 摆

8月31日 7月5日 개

까지부터 장



그림·목교 全榮華 교수의 「연꽃」

『··· 때로는 돈이 되는 글도 쓰셔야지요. 지금 세상은 무엇이나 상업위주입니다. 문학도 돈이예요. 돈없으면 죽습니다. SEX소설도 쓰시고, 으시시한 살인소설도 쓰십 시오.』

하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었다.  
『흥, 교회나가는 여자란 참! 저쯤  
되면 저 전광신자지  
이령안그렇소?』  
할 말이 없으면 이런식으로 글을  
맺으려는 우리들의  
특유성은 백선례

신랄하게  
죽이 얼른 허  
쉬고 내 쏘았다. 그때까지 고개를  
부인의 고통스럽게 앓았었던 그  
번질들였다.  
『여보, 그런 소릴 우리가 도울 줄  
몰랐다고 해서 신을 모두 할순 없  
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얼굴이 언  
젠가 저점에 달호했다. 그러나 복 받쳐 오  
열을 찾으려는 밖으로 뛰어

『누구인가 있었지?』  
『나다! 나의 신앙에 탄복  
가둬 말이니!』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부인이 눈에선 풀  
잎에 맷دين 아침 이슬처럼 영통하고  
빛나는 것이 있었다.  
『절말 하나님의 계시조. 이선생님!』  
그녀는 저들 내게 말했다.  
『그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  
고 말았다. 그렇다고 허튼 말을  
아니었다.

내가 백로수 선배를 자주 방문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러나 여기서 다 빼어버리고 두 가지 만 말한다면 나보다 다섯 위인 뼈 선배가 나의 서를 다섯에 이르도록 작품에 고집인지 신념인지를 지 키며 본격 작품만을 쓰겠다는 오너이다. 그것까지는 좋으나 가족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나는 그 부인에 동정을 금치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가끔 『선배님, 제발 그 오기 좀 얹으십 시오. 때로는 도이 되는 글도 야지요. 지금 세상은 무언이나 삽업 위주입니다. 문학도 돈이에요. 돈 없으면 죽습 니다. Sex으로 살 수도 있고 으시지 않고. 권한다. 거기엔 사실 내 저 의도 있었다. 백선배가 조금은 비를 거려주어야 나도 장차는 나도 신조 는 따로 가지면서 탈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신을 믿는 풀이 마치 크리스마스날 「산타클로스」 활이 아버지 크리스마스날 같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백선배 시기를 믿고 있다. 그 신을 믿는 풀이 마치 크리스마스날 「산타클로스」 활이 아버지 크리스마스날 같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백선배 부인의 신앙심이나 순수하다고 할까. 어쨌든 남편의 물화도 믿고 있는 겨울이다. 그대로 신앙이 이런 식으로 부인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술뿐 아니라 암호도 약간  
『어서 오시오』  
『동안 별일 없으시죠?』  
나는 가지고 간 술을 내놓았다.  
『이거 올 때마다 무슨 술을…』  
『사모님께선 아직…』  
저녁인데도 아직 교회에서 일을  
아니 나는 물을 있었다.  
『그런 모양이야.』  
나는『이크, 오늘 잘못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까딱하면 또 그 신  
탁령으로 시작되는 부부싸움을 광활한  
해야 할 판이 될지도 모로기 때문이다.  
다. 좀 있으니, 부인이 를 아워다  
온데에 보는 부인의 얼굴이 눈에  
뜨게 야위어 있었지.  
『어떻게 됐어?』  
백선가 아내에게 성급하게 물었  
다. 그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어디 도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하고 풀기 하나없이 낫게 대답했다.  
그려 하나님 믿는 교인들 중에  
서 돈 30만원 들려줄 사람이 없단 말야  
지들을 하군. 아이가 다죽게 되었단

고료를  
받으면 실만원 된다. 혼  
재 가진 듯이 칠만원 정도. 나머지  
십삼원은 어찌나 나는 일어나 일  
어나 밤을 새워서 고리를 썼다.  
그것을 끌고 다음날 친분이 있는 잡  
지사에 가서 며맡기고 실만원을  
내었다. 그리고 급히 백선배 대의로  
뛰어갔다. 다다가 문득 발이 멀어져  
졌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 가졌다.  
백선배부부가 무척이나 부답스러워 일 하면서  
것 같았다. 또 좋아일 하는 바에 대해서 이정  
야 철자히 익명으로 보자 했다. 그래서 이정  
을 험했다는 지나서 돈을 보내고 난 뒤, 며  
나는 백선배의 아이가 수탉을 찾았을 때  
병원으로





國民會議 운영위원회에 선임  
水原 東友會長으로 활약 거



趙正泰  
<水原  
正泰>

趙正煥

(49岁)

國民會議 운영위원회에 제2代統一主體  
水原 東友會長으로 활약 거

趙同門

(51岁)

國民會議 운영위원회에 民主共和黨  
水原 東友會長으로 활약 거

徐京保

(51岁)

中央禪院

趙同門

(51岁)

中央禪院

布教次

美

國

巡訪길

徐

京

保

徐京保

(51岁)

佛教大敎司

徐京保

(51岁)

布教活動

徐京保

(51岁)







